

# 치위생(학)과 학생의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공감력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융합연구

박신영\*  
송원대학교 치위생학과

##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 supporting awareness in their empathy about elderly

Sin-Young Park\*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ongw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의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공감력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대학의 치위생(학)과 학생 193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을 IBM SPSS STATISTICS 20.0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과 공감력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공감력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부양의식이 높을수록 공감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노인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 치위생, 학생, 노인, 공감력, 부양의식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upporting awareness and empathy with the dental hygiene student. The participants were 193 dental hygiene students in Gwang Ju city and analyzed by the frequency analyzed, t-test, ANOVA, pearson co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IBM SPSS STATISTICS 20.0. Supporting awareness and empathy about the elderly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Factors influencing empathy were interest of elderly problem and supporting awareness. It is necessary to the establishment of a subject and education program about elderly in dental hygiene students.

Key Words : Dental hygiene, Student, Elderly, Empathy, Supporting awareness

### 1. 서론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5년에 전체 인구의 9.1%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계속적인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2020년에는 노인 인구가 15.6%로 고령사회, 2050년에는 더욱 증가하여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고령사회는 노인들의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및 경제활동 등이 저하되어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된다. 또한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등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노인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나아가 두 연령층이 단절될까지 보이면서 세대 간 갈등과 노인 부양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2,3].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젊은이들에게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고, 노인 인구 증가로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4]. 그 중 노인의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과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고 있는데 특히 2014년 노인의 외래 다빈도 질병순위에서 전신질환과 함께 2위가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많은 노

인들이 치과 의료기관 방문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그에 따라 노인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구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위생사 인력에 노인환자에 대한 요구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위생사에게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노인분야의 직장을 선호하지 않게 되고, 의료의 질 및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6,7].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선호하는 환자에 대하여 성인이 60.8%이었고, 노인은 6%로 가장 선호하지 않은 환자로 나타났다 [8]. 치과위생사들은 노인에게 효과적인 의료 수행을 행하기 위해서 대상자에 대한 책임감, 간호 방향, 질 높은 치료 등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잘 알려진 부양의식이 필요하다[7,9].

이러한 부양의식과 함께 노인에 대한 감정이나 심리적인 상태, 내적인 경험에 대하여 함께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공감력이 필요하다[7]. 공감력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의료의 질 및 의료서비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건강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노인환자를 많이 접하게 되는 치과위생사에게 중요한 요인이 된다[10-12]. 이러한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는 향후 임상에서 근무하게 될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학)과 학생 때부터 노인에 대해 부양의식과 공감력을 갖게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사료된다.

하지만 대부분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과 공감력에 대한 연구는 임상근무자 및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이뤄져 있고, 현재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7,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 공감력을 알아보다 노인 치위생학 교육에 대한 방향 및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대학의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조사하였다. 대상자들은 연구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미리 듣고 자발적으로 조사에 동의한 학생들만 모여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적합한 표본수를 확인하기 위해 Cohen이 제시한 G\*Power 3.1프로그램에서 mutiple regression analysis 의해 유의수준  $\alpha=0.05$ ,

효과크기는 중간정도=0.15, power=0.95로 정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수는 172명으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명을 설문조사하였고, 최종 분석에 이용된 연구 대상자는 193명(96%)이었다.

## 2.2 연구도구 및 방법

### 2.2.1 연구도구

일반적 특성에서는 학년(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성장도시(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가족유형(대가족, 핵가족, 기타), 종교유무, 노인과 동거한 경험 유무,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정도(높다, 보통, 낮다), 노인관련 실습 경험유무, 노인관련 교육받은 경험 유무를 조사하였다.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은 Tuc kman과 Lar ge의 척도를 기본으로 한 진달래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7]. 진달래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공감력은 La Monica(1981)가 개발한 Empathy Construct Rating Scale(ECRS)의 도구를 활용한 송은선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중복된 내용은 수정하여 5점 척도로 총 5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력이 높음을 의미한다[13,14]. 송은선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 2.2.2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C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 공감력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과 공감력은 t-test, One-way ANOVA 및 Scheffé test를 이용하여 사후 검정법을 시행하였다. 부양의식, 공감력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노인에 대한 공감력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Multi regression analysis의해 실시하였고, 본 연구의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성장도시는 대도시가 57.5%로 가장 많았고, 종교 유무는 없는 경우가 64.8%로 많았다. 노인과 동거 경험은 없는 경우 57.5%로, 노인 문제 관심도는 보통이 57.5%, 낮다가 26.4%이었다. 노인 관련 실습 유무는 없는 경우가 61.7%, 노인 관련 교육 경험 유무는 없는 경우 63.7%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Grade	1	35(18.1)
	2	58(30.1)
	3	66(34.2)
	4	34(17.6)
Residential type	Metropolitan	111(57.5)
	City	53(27.5)
	Rural area	29(15.0)
Family type	Extended family	21(10.9)
	Nuclear family	167(86.5)
	The other	5(2.6)
Religion	Yes	68(35.2)
	No	125(64.8)
Experience living with the elderly	Yes	82(42.5)
	No	111(57.5)
Interest of elderly problem	High	31(16.1)
	Normal	111(57.5)
	Low	51(26.4)
Clinical Experience with the elderly	Yes	74(38.3)
	No	119(61.7)
Experience education with the elderly	Yes	70(36.3)
	No	123(63.7)

### 3.2 연구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 공감력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인지한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은 Table 2와 같이 총점 5점 만점으로 3.93±0.578점, 공감력은 3.54±0.356이었다.

Table 2. Supporting awareness and empathy about the elderly  
N=193

Characteristics	M±SD
Supporting awareness	3.93±0.578
Empathy	3.54±0.356

Table 3. Supporting awareness and empathy about elderl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Supporting awareness		Empathy	
		Mean (SD)	p	Mean (SD)	p
Grade	1	3.97 (0.67)	0.853	3.70 (0.39) <sup>b</sup>	0.003
	2	3.88 (0.65)		3.44 (0.41) <sup>a</sup>	
	3	3.96 (0.47)		3.50 (0.26) <sup>a</sup>	
	4	3.95 (0.57)		3.60 (0.34) <sup>a</sup>	
Residential type	Metropolitan	3.95 (0.55)	0.812	3.16 (0.22)	0.771
	City	3.93 (0.61)		3.17 (0.26)	
	Rural area	3.87 (0.65)		3.20 (0.34)	
Family type	Extended family	3.76 (0.52)	0.063	3.54 (0.34) <sup>a</sup>	0.016
	Nuclear family	3.94 (0.58)		3.52 (0.35) <sup>a</sup>	
	The other	4.42 (0.48)		3.98 (0.49) <sup>b</sup>	
Religion	Yes	3.97 (0.56)	0.558	3.54 (0.28)	0.954
	No	3.92 (0.59)		3.54 (0.39)	
Experience living with the elderly	Yes	4.02 (0.51)	0.068	3.62 (0.32)	0.003
	No	3.87 (0.62)		3.47 (0.37)	
Interest of elderly problem	High	4.00 (0.63) <sup>b</sup>	0.006	3.63 (0.31) <sup>b</sup>	<0.001
	Normal	4.02 (0.49) <sup>b</sup>		3.60 (0.34) <sup>b</sup>	
	Low	3.72 (0.67) <sup>a</sup>		3.35 (0.34) <sup>a</sup>	
Clinical Experience with the elderly	Yes	4.06 (0.47)	0.014	3.60 (0.34)	0.038
	No	3.86 (0.62)		3.49 (0.36)	
Experience education with the elderly	Yes	4.04 (0.49)	0.131	3.60 (0.34)	0.065
	No	3.89 (0.62)		3.50 (0.36)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과 공감력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은 Table 3 과 같이 노인 문제 관심도(p=0.006), 노인관련 실습 유무 (p=0.01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노인에 대한 공감력은 학년(p=0.003), 가족유형(p=0.016), 노인과 동거 경험유무(p=0.003),노인문제에 대한 관심도(p<0.001), 노인 관련실습 유무(p=0.038)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3.4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 공감력 간의 상관관계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과 공감력은 Table 4와 같이 r=0.531(p<0.001)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s for supporting awareness and empathy about elderly

	Supporting awareness	Empathy
Supporting awareness	1	
Empathy	0.531**	1

\*p<0.05, \*\*p <0.01

### 3.5 노인 공감력에 미치는 요인

노인 공감력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노인 문제 관심도가 높을수록, 부양의식이 높을수록 공감력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5. Factors affecting with empathy

Variable	B	SE	$\beta$	t	p
Grade	-0.025	0.022	-0.070	-1.157	0.249
Family type	0.058	0.063	0.059	0.927	0.355
Experience living with the elderly	-0.076	0.046	-0.105	-1.634	0.104
Interest of elderly problem	-0.094	0.036	-0.170	-2.622	0.009
Clinical Experience with the elderly	-0.049	0.045	-0.067	-1.097	0.274
Supporting awareness	0.287	0.039	0.466	7.394	<0.001
R <sup>2</sup> =0.338, Adj.R <sup>2</sup> =0.317, F=15.836					

## 4. 고찰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공감력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 3.93점, 공감력 3.54점으로 간호학과 학생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15,16]. 이는 간호학과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에서 노인 간호학 교과목을 전공과목 개설하여 노인에 대한 지식 습득과 그에 따라 노인 관련 병원 실습이 함께 이뤄져 노인과의 접촉이 더 많지만 치위생(학)과의 경우 국가고시 과목에 초점이 맞춰진 학과 교육과정으로 인해 노인과 관련된 교과목 및 실습 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실제 본 연구에서의 연구결과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노인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36.3%로 선행 연구에서 있는 경우가 20.1%에 비해 높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2]. 또한 2012년 기준으로 전국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서 노인관련 과목 개설은 12.7%에 불과하였고, 노인관련 실습은 더욱 미흡한 실정이다[17]. 그리하여 치위생(학)과에 노인관련 교과목 개설의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노인 관련 실습 유무도 부양의식과 공감력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실습을 통해 노인과의 접촉증가로 인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서 부양의식 및 공감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을 많이 접하게 되는 전문직의 경우 노인 관련 실습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실습을 통한 긍정적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더욱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19]. 또한 실습 전 사전 학습으로 이론수업을 시행 후 실습을 하게 되는 경우 더욱 공감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에 대한 이론과 실습이 함께 이뤄져야함의 중요성을 보고한 바 있다[15]. 그리하여 노인 접촉 증가를 위해 치위생(학)과에서도 이론과 함께 노인 관련 구강보건교육실습 및 노인 병원 등에서의 실습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은 공감력과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은 사회적 정책 결정 및 노인을 대하는 방향 결정에 도움이 되어 중요하기 때문에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20]. 또한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직업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임상

현장에서 대상자의 입장에 서서 대상자와 함께 진행해 나가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대상자에 대한 공감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미래의 치과위생사가 될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추후 입장에서 근무 시 노인진료에서 도움이 되기 위해 부양의식과 공감력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에 대한 공감력에 미치는 요인으로 노인 문제 관심도와 부양의식이 나타났다. 노인 문제 관심도는 노인에 대한 행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21]. 하지만 본 연구에서 노인 문제 관심도는 중간이거나 낮은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노인 문제 관심도를 높여주기 위한 노력은 단기적이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관심도를 높여줄 수 있는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의 치위생(학)과 학생들로 국한되어 조사하였기 때문에 전국 모든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추후에는 대상자 인원을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노인 대상자를 많이 접하게 되는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노인 관련 치위생학의 학습 자료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추후 다양한 요인 및 연구방법을 고려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과 공감력에 대해 알아보아 노인관련 치위생학 교육 방향 및 기초자료에 도움이 되고자 실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은 5점만점에 3.93점, 공감력은 5점만점에 3.54점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은 노인 문제 관심도( $p=0.006$ ), 노인 관련 실습 유무( $p=0.014$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공감력은 학년( $p=0.003$ ), 가족 유형( $p=0.016$ ), 노인과 동거 경험( $p=0.003$ ), 노인문제 관심도( $p=0.000$ ), 노인 관련 실습유무( $p=0.036$ )으로 나타났다.
3.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과 공감력은 공감력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노인에 대한 공감력에 미치는 요인으로 노인 문제 관심도와 부양의식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노인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 *Population of the world and Korea.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ttp://www.kosis.kr>.
- [2] M. S. Gim. (2001). *Sojanyeo and the interaction of the elderly and mental health*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Kookmin, Seoul.
- [3]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4).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Health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ttp://www.mohw.go.kr>.
- [4] S. H. Jung & E. H. Kim. (2013). Image toward the elderly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in gangwon province. *Journal of Korean Soc Dent Hyg*, 13(6), 1071-1077.  
DOI : 10.13065/jksdh.2013.13.06.1071
- [5] Y. S. Lim, J. S. Kim & K. S. Kim. (2002). Nurse aging knowledge attitud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2(1), 31-46.
- [6] S. M. Kwon, M. S. Kwon & O. G. Kwag. (2015).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2), 1129-1136.
- [7] D. L. Jin. (2013).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on consciousness of caregiving for their aged parent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Inje, Kimhae.
- [8] M. G. Ji & K. S. Ahn. (2008). A study of images of the elderly perceived by dental hygienist and their behaviors. *Journal of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8(8), 23-66.
- [9] K. M. Park & D. Y. Lim. (2016).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regarding aging, and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Journal of Nursing Science*, 20(2), 47-57.
- [10] H. J. Yang, H. J. Kim & E. K. Byun. (2016). Factors influencing empathy for the elderl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5), 86-94.

DOI : 10.5762/kais.2016.17.5.86

- [11] H. S. Jung. (2012). Influencing factor on nursing students' attitude to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Data Analysis Society*, 14(4), 2025-2037.
- [12] J. Yu & M. Kirk. (2009). Evaluation of empathy measurement tools in nursing: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5(9), 1790-1806.  
DOI : 10.1111/j.1365-2648.2009.05071.x
- [13] M. S. Kim. (1988).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Korean empathy construct rating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8(1), 26-33.  
DOI : 10.4040/jnas.1988.18.1.26
- [14] E. S. Song. (2015). *The factors of empathy for older patient in general hospital nurse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National, Seoul.
- [15] A. G. Yang. (2013). A study on aging knowledge, attitudes and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i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498-507.  
DOI : 10.5977/jkasne.2013.19.4.498
- [16] N. S. Seo1, J. S. Moon, S. H. Hong & Y. H. Park. (2016). The influence of attitude, experience and empathy on the nursing care of the elderly who have no caregiver.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0(2), 179-191.  
DOI : 10.12811/kshsm.2016.10.2.179
- [17] S. J. Kim. (2012). The effect of senior simulation on dental hygiene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2(6), 652-659.
- [18] B. H. Jun & Y. S. Choi. (2015). Influence of elderly-related experience on attitude toward elderly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5(6), 1019-1026.  
DOI : 10.13065/jksdh.2015.15.06.1019
- [19] J. H. Seomun. (2015). The effect of experiences of social work practicum and volunteering on social worker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21, 114-136.
- [20] J. S. Kang, D. Y. Jung & Y. Y. Kim. (2009). Women university students' supporting awarenes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3), 851-865.
- [21] K. A. Choi. (2006).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y*.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Ewha Woman, Seoul.

## 저 자 소 개

박 신 영(Sin-Young Park)

[정회원]



- 2005년 2월 : 원광대학교 보건학과  
구강보건전공 (보건학 석사)
- 2017년 8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송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관심분야> : 보건학, 치위생학